



축산업계소식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방역본부 배상호 본부장 취임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는 지난 5월6일 배상호 신임 본부장의 취임식을 가졌다. 배상호 본부장은 취임사에서 “그동안의 경험을 총동원하여 가축위생방역사업과 축산업 발전을 위하여 헌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생산자와 소비자를 위하여 경제성질병의 근절과 안전축산 먹거리를 제공하는 ‘가축방역통합지원기관’으로 육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배상호 본부장은 농식품부·국립수의과학검역원·대한수의사회에서 방역·위생·수의분야에 근무하였으며, 영국 래딩대학에서 “수의역학 및 경제학”을 수료하고 서울대에서 환경계획학 석사학위를 취득하는 등 가축질병과 축산환경위생 전문가로 손꼽히고 있다. 방역본부장은 비상근으로 임기는 3년이다.

(사)한국계란유통협회

강종성 회장 취임식 거행

(사)한국계란유통협회(회장 강종성)는 4월 28일 63빌딩 코스모스홀에서 회장 이·취임식을 갖고, 2기 회장단 및 집행부를 공식 출범시켰다.

최홍근 전임회장은 “그동안 부족한 회장을 도와준



임원들과 집행부에 감사드린다.”고 이임사를 대신하며 “소비자의 신뢰를 받는 계란유통협회가 될 수 있도록 신임 회장과 임원들이 잘 이끌어달라.”고 당부했다. 강종성 신임회장은 취임사에서 “회원들의 뜻을 모아 협회가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생산자단체와 상생, 공동번영의 길을 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새로운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고, 협회의 혁신을 이뤄내겠다.”며, “생산자단체뿐만 아니라, 정부, 학계, 소비자까지 모두의 목소리를 듣겠다.”고 강 회장은 밝혔다. 이날 이취임식에서는 각 분과위원회 신임 임원진과 집행부가 출범했음을 선언과 동시에 초대 최홍근 회장에게 공로패를 전달하고, 명예회장으로 위촉하기도 했다.

닭수출연구사업단

미국 USDA/FSIS에서 ‘한·미 공동 세미나’ 개최

닭수출연구사업단(단장 강창원)은 지난 4월 23일 미국 워싱턴에 위치한 USDA/FSIS 회의실에서 닭고기 수출관련 한·미 공동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날 참석한 한국 대표는 강창원 단장(건국대 교수)을 비롯, 김진만 세부연구책임자(건국대 교수), 김기석 주무관(검역원), 윤두현 사장(마니커에프엔지),



허송무 사무관(주미국한국대사관)으로 총 5명이었다. 한국측에서는 '한국의 닭고기 가공품 등 축산물의 기준규격 및 검역검사 시스템'과 '대미 수출추진 가금육작업장의 HACCP System 및 위생 개선 내용'을 발표하였으며, 미국측에서는 '가금 도축장의 Salmonella sp. 관리 및 검사 현황', '미생물 검사와 관련한 위생기준(PR-HACCP)', '즉석섭취축산물(Ready-to-eat)에 대한 동등성 규정'을 각각 발표하였다. 미국에서는 미농무부 Clay Hamilton 박사(수출담당)를 포함 6명이 참여하였다.

한편 닭수출사업단은 5월 15일 '한·미 공동세미나'에 대한 보고회를 갖는 자리에서 (주)농업목우촌, (주)정우식품, (주)하림, (주)한협축산과 MOU를 체결하고 본격적인 닭고기 수출준비에 착수했다.

한국가금학회

국제심포지움 개최

한국가금학회(회장 박장희)가 지난 5월 29일 '세계 가금산업의 생산 및 안전성 관리 현황과 전망'에 대한 주제로 서울대학교에서 국제심포지움을 개최했다. 좌장은 서울대학교 한재용 교수와 고려대학교 지규만 명예교수로 한국가금산업에서 HACCP 현황

(손영호 원장, 반석가금질병 연구소), 식품의 품질과 안전의 가치(호세마리아 헤르난데즈 가금유통담당, EU), 가금에서 장 내 건강을 지속적으로 유지시키기 위한 성장촉진 대체제(탄 하이멩 박사, 호주), 고상 발효 기술을 이용한 사료비용 절감(앨러슨 리어리, 미국), 일본 사회의 요구에 따른 닭 생산 및 안전관리 연구의 최근 동향(다카하시 카즈아키 교수, 일본) 등 발표로 진행되었다.

제7회 연산오계 문화제

오계의 전통문화 체험으로 지역 축제의 길 열어



연산오계 문화제 행사가 지난 25일 논산에서 7회째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은 천연기념물 265호의 오계를 보존·육성하고 다양한 문화행사를 구성해 오계의 친근함을 알려 뜻 깊은 자리를 마련했다. 특히 우리가 알고 있던 '오골계'가 아닌 '오계'의 정체성을 알리는데 홍보했고, 오계의 성장과정과 국내에서 흔히 보지 못한 실키, 자보, 샤모 등 외국닭을 한자리에서 볼 수 있어 현장학습의 기회를 제공했다. 또한 자원봉사와 시민들의 높은 관심과 참여로 '제7회 연산오계 문화제'의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만큼 한층 발전된 지역 축제로 자리 잡을 것으로 보여진다.

(사)한국오리협회

2009 '제7회 오리데이 페스티벌' 개최



오리협회는 지난 4월 30일에 매년 주관하고 있는 '제7회 오리데이 페스티벌'을 신촌 밀레오레 앞 광장에서 농협중앙회와 (사)한국오리협회가 행사를 주최 농림수산물부가 후원해 성공리에 개최하였다. 이날 각 축산단체장들의 방문으로 '오리데이 페스티벌'을 빛내 주었으며, 가수 김흥국이 홍보대사에 임명돼 소비자들에게 오리고기의 진가를 알리는데 열심히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오리고기 5,200인분 시식과 오리업체브랜드 전시 및 할인 판매, 요리왕 선발대회를 진행해 오리고기의 다양한 음식 메뉴를 개발해 선보였다. 시식코너의 활발한 참여 속에 오리고기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높아 '웰빙오리'의 이미지를 대중화시킨 계기가 되어 소비촉진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대전충남양계농협

양계산물홍보대회

지난달 16일 대전충남양계농협(조합장 안병철)은 안면도국제꽃박람회장에서 양계산물홍보대회를 개최했다. 최근 사료가격의 폭등과 난가하락, 소비가



위축되는 등 양계농가의 어려움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행사에서 홍보부스를 설치해 구

운계란과 치킨 등 안면도국제꽃박람회를 방문하는 관광객에게 시식과 동시에 양계산물을 홍보하는 자리를 가졌다.

축산물등급판정소

쇠고기 이력추적제 실무지식 소양평가 실시



축산물등급판정소(소장 이재용)는 쇠고기 이력추적제 전반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할 수 있는 역량을 구축하고 민원업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쇠고기 이력추적제 실무지식 소양평가'를 지난 4월 20일, 전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이번 평가는 2월부터 사전 공지하여 쇠고기 이력추적제 실무지식을 숙지토록 하였으며, 소양평가를 통해 습득한 지식은 도축장·가공장·판매장 등 현장에서 발생하는 고객들의 애로사항을 신속히 해결하는 등 이력추적제의 원활한 시행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

간부직원 성금모금, 소외계층에 온정의 손길



국립수의과학검역원 5급 이상 간부 직원들은 매월 봉급에서 일정액의 성금을 모금하여 최근 경제위기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지역 독거노인 및 소녀소년가장 등 소외계층을 돕기로 하였다.

검역원 1社1村 자매결연마을이 있는 김천시 지례면 관내에 거주하는 독거노인 20명에게 매월 10만원씩 지원키로 하고, 3~4월분 봉급에서 모금한 400만원을 지난 5월 8일 전달하였다. 일화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정성과 사랑을 통한 검역원 직원의 따뜻한 온정의 손길을 이어 나가기로 하였다.

어린이 기호축산식품 특별 단속 결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09.3.9~4.24일 기간 동안 어린이가 좋아하는 축산식품에 대한 위생 및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어린이 기호축산식품 생산 및 판매업소에 대해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 과 합동 특별 위생점검을 실시한 결과 30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주요위반사항으로는 소시지등 축산물가공품 성분 검사 미실시(5개소), 냉장제품 실온보관(2개소), 유통

기한 미표시 및 알레르기 유발물질 미표시 등 축산물표시기준 위반(6개소), 자체위생관리기준 미운용(6개소),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1개소) 등으로, 이들 위반업소는 축산물가공처리법령에 따라 영업정지,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을 받는다.

국립축산과학원

개원 57주년 맞아 축훈제 거행



농촌진흥청(청장 김재수) 국립축산과학원은 5월 8일 개원 57주년을 맞아 시험연구사업으로 희생된 가축들의 넋을 기리기 위하여 '축훈제' 를 드리고 우수연구원 시상 등 개원기념행사를 개최하였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은 1952년 5월 농림부 중앙축산기술원으로 발족한 이래 지난해 2008년 10월 난지농업연구소의 축산기능을 이관 받아 국립축산과학원으로 재탄생하여 2009년 5월 10일자로 개원 57주년을 맞이하였다.

이 날, 개최된 기념식에서는 30여년 동안 축산시험연구사업을 성실히 수행한 양돈과 김명직 농업연구관 등 7명이 우수연구원상을 수상하였고, 가축개량분야 특별공로상은 (사)한국종축개량협회 김윤식 종돈개량부장과 전북대학교 백동훈 교수에게 돌아갔다.